

SK하이닉스 ADR 효과… 미국 레버리지 ETF ‘줄상장’

레버리지 ETF, 뉴욕증시 순차 출시
한미 시장 변동성 상승 가능성 제기
장기적인 멀티플 확대 등 기대감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연계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뉴욕증시에 잇따라 출시된다.

12일(현지시간) 각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레버리지셰어즈, 그레나이트셰어즈, 프로셰어즈, 코기펀츠 등 미국 ETF 운용사들이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13~14일께 뉴욕증시에 SK하이닉스 ADR와 연계한 ETF를 출시한다고 예고했다.

레버리지셰어즈는 SK하이닉스 ADR 주가의 일일 변동폭과 연동된 2배 레버리지 ETF(종목코드 SKHX)와 인버스 ETF(SKHZ)를 13일 출시했다.

프로셰어즈 역시 2배 레버리지 ETF(SKHU)를 같은 날 출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레나이트셰어즈는 2배 레버리지(SKUU) 및 2배 인버스(SKDD) ETF 상품을 각각 14일 출시한다고 공지했다. 코기펀츠도 14일 2배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다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고 밝혔다.

디렉시언은 2배 레버리지(SKHL) ETF 상품 출시를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출시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들 레버리지 상품의 실제 거래 일시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미국 ETF 운용사들은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AMD 등 뉴욕증시에 상장된 주요 빅테크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ETF를 출시해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된

직후에도 스페이스X 주가와 연동된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봇물 터지듯 출시된 바 있다.

SK하이닉스 ADR는 지난 10일 공모가 대비 13.08% 급등한 168.49달러에 마감하며 뉴욕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해 개별종목 일일 등락 폭의 2배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된 고위험 상품이다.

이런 구조의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 장

마감 무렵 매일 익스포저를 재조정(리밸런싱)해야 하는데, 스왑 상대방인 투자은행 등이 이 물량을 커버하기 위해 실제 ADR을 사고파는 헤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일중 변동성을 키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커진 ADR의 변동성은 ADR-본주 간 괴리율 변화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의 매매 판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내에 이미 상장된 SK하이닉스 연계 레버리지 상품과 맞물릴 경우 양국 시장에서 레버리지 자금이 동시에 움직이며 변동성이 상호 증폭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신규 상장 초기인 만큼 SKUU·SKDD의 운용자산(AUM) 규모는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코스피 본주 변동성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은 장밋빛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그동안 경쟁사 대비 저평가됐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시 자금유입이 전망되며 이는 본주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고 기대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ADR 상장이 장기적인 멀티플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를 SK하이닉스에 적용해 글로벌 피어인 마이크론과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SK하이닉스 및 국내 반도체주의 밸류에이션 갭이 축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시장자배력과 수익성 우위를 고려하면 “향후 멀티플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단계를 넘어 멀티플 프리미엄 구간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ADS의 미국 주요 지수 편입 여부, 본주와 ADR의 상호전환에 따른 차익거래 현실화의 두 가지가 언급된다.

역대 3번째로 큰 기업공개(IPO)였다든 점 등을 고려할 때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 편입은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삼성·하닉 레버리지 ETF 줄줄이 신저가

한 달 사이 시가총액 6조 증발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 목소리

코스피가 6900선 밑으로 추락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들도 역대 최저가로 내려앉았다. 본주 하락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 특성상 손실 폭이 빠르게 커지면서 시가총액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6조원 넘게 증발했다.

13일 한국거래소와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이 이날 장중 모두 상장 이후 최저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가운데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장중 1만4835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5월 말 상장 이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지난달 23일 기록한 최고점 4만4385원 대비 66.6% 하락했다.

이외 ‘ACE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RIS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SOL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

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 6종이 모두 역대 최저점으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는 장중 1만2035원까지 밀리며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2일 기록한 고점 3만395원 대비 60.4% 떨어졌다.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AC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PLUS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RISE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Q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도 일제히 신저가를 경신했다.

이들 상품은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구조다. 두 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리면서 레버리지 ETF의 낙폭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자금도 빠르게 줄고 있다. 지난달 25일 16조원을 웃돌았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16종의 시가총액은 이날 9조 6536원까지 줄어들면서 10조원을 하회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중 8% 넘게 떨어지며 오후 1시 28분께 올해 7번째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됐다. 삼성전자는 11.22% 하락한 25만3000원, SK하이닉스는 15.64% 떨어진 183만9000원까지 밀렸다.

거래가 집중되고 있는 점도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 10일 기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10조 1157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 31조9757억원의 31.6%를 차지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투자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본예탁금 상향, 투자자별 투자 비중 제한, 교육 강화 등이 언급된다.

이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20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ETF 시장 현안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신하은 기자



Global X Japan 운용자산 1조엔 돌파에 임직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 일본 ETF 운용자산 1조엔 돌파

테마형·인컴형 ETF 앞세워 성장
박현주 회장, 다이와와 협업 결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일본ETF 운용회사인 글로벌엑스재팬(Global X Japan)이 운용자산(AUM) 1조엔을 돌파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일본 ETF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다이와증권그룹과 추진한 현지 사업이 설립 6년 만에 운용자산 1조엔을 넘기고 첫 연간 흑자가 지 달성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3일 Global X Japan의 6월 말 기준 운용자산이 1조1400억엔(약 70억달러·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처음 1조엔을 넘어선 이후에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성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Global X Japan은 2019년 설립된 일본 ETF 전문 운용사다. 최근 3년간 운용자산은 약 7.5배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CAGR)은 89.7%를 기록했다.

회사는 AI, 반도체, 커넥트 등 테마형 ETF와 인컴형 ETF를 중심으로 상품 경쟁력을 키우며 투자자 기반을 확대했다. 2020년 첫ETF를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71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신NISA 제도 시행 이후 개인투자자의 ETF 투자 수요가 늘어난 점도 성장에 힘을 보탰다. 올해 일본ETF 시장 전체 순유입 규모 약 27억달러 가운데 Global X Japan에는 약 15억달러가 유입됐다.

/허정윤 기자

카카오페이증권, 투자매매업 인가 획득

자기자본 활용 상품 인수·공급 가능

카카오페이증권이 투자매매업(증권)인가를 취득했다. 이전까지 투자중개업이었던 카카오페이증권은 이제 유가증권의 중개와 더불어 직접 인수와 매매,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증권은 금융당국이 지난 1일 카카오페이증권의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등록(1-1-1 투자매매업·증권) 신청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카카오페이증권은 자기자본을 활용한 상품 인수 및 공급이 가능해진다. 카

카오페이증권은 “이번 인가는 리테일과 투자금융(IB) 사업을 잇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기업공개(IPO) 주관 및 인수 사업이 가능해진다. 공모주 청약 서비스의 법적 토대 또한 마련하게 됐다.

리테일 채권 매매와 국내외 소수점 거래 등 사용자 대상 상품 종류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세일즈앤트레이딩(S&T) 사업 확장,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참여, 채권 운용 다변화 등 자기자본을 활용한 수익원도 넓어진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360억엔 엔화채 발행 완료

일본 자본시장 점점 넓혀

한국투자증권은 총 360억엔(약 3353억원) 규모의 엔화 표시 무보증 사채(사무라이본드) 발행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수요예측에서 총 531억엔의 유효 주문을 확보하며 현지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만기별 발행 규모는 2년물 170억엔, 3년물 93억엔, 5년물 97억엔이다.

가산금리(스프레드)는 2023년 첫 발행 당시보다 크게 낮아졌다. 2년물은 15bp(1bp=0.01%포인트) 축소된 TONA(무담보 익일물 콜금리) 미드스왑 대비 +130bp, 3년물은 40bp 낮아진 +170bp로 결정됐다. 이번에 처음 선보인 5년물은 +185bp 수준으로 발행됐다. 발행 주간은 SMBC닛코증권이 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00억엔을 추가 조달하며 일

본 자본시장과의 접점을 넓혀왔다. 현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투자설명회(IR)를 열고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알린 점이 투자자 신뢰를 높였다는 평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발행은 일본 공모채권시장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투자 저변을 장기물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조달 자금을 활용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다각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